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 수취채권(Receivables)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기타채권 : 미수금, 대여금 등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지급채무(Payables)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기타채무 : 미지급금, 차입금 등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 팩토링(Factoring)

기업이 외상판매로 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물건을 판매할 때,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외상으로 판매하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accounts receivable)을 받는다. 그 채권을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 할인 판매하면 기업은 현금을 챙길 수 있다. 이때 채권을 구매해주는 제3자를 팩터(factor)라고 한다. 채권인수를 담당하는 회사 즉 팩터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기관이다.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방법 중 담보나 보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 매출 예누리와 환입(매입 예누리와 환출)

매출 예누리(매입 예누리)란 판매(구입)한 제품이나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 값을 깎아 주는 것을 말한다.

매출 환입(매입 환출)이란 판매(구입)된 제품이나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 판매(구입)된 제품이나 상품이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매입액)을 감액하는 것도 매출 예누리(매입 예누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매출 에누리와 환입(매입 에누리와 환출)

## 회계처리방법

매출(매입)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매출 에누리와 환입(매입 에누리와 환출) 액을 반품추정충당부채(매입환출충당금)를 설정하여 매출액(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회계처리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입에누리와 환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액(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도 있고,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입에누리와 환출)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

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매입액을 공시할 때에는 총매출액(총매입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입에누리와 환출)을 차감한 순매출액(순매입액)으로 공시하면 된다.

##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상품이 외상으로 판매될 때에는 일정한 신용조건이 부여되는데 신용조건은 통상 특정기간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신용기간(credit period)과 조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할인(cash discount)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2/10, n/30이라는 신용조건은 30일 이내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10일 이내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총 외상대금 중 2%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기업들은 상품판매에 따른 현금의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상품의 구입자가 할인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의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할인(sales discounts)이 발생하게 된다.

상품 100,000원을 2/10, n/30의 신용조건으로 판매한 경우 순액법  
과 총액법의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순액법

총액법

매출시 : 매출채권 98,000 /매출 98,000      매출채권 100,000 /매출 100,000

할인기간 내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 98,000 /매출채권 98,000      현금 98,000 / 매출채권 100,000

매출할인 2,000

할인기간 이후에 현금을 수취한 경우

현금 100,000 /매출채권 98,000      현금 100,000 /매출채권 100,000

이자수익 2,000



#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 원가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판매가능 상품원가=기초상품 재고액+당기 상품매입액)는 기간 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매된 부분(매출원가)과 미 판매된 부분(기말재고)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기초상품재고액      × × ×

당기상품매입액      × × × - 판매된 부분 : 매출원가

판매가능상품원가   × × × - 미 판매된 부분 : 기말재고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u>단위(개)</u>	<u>단위원가</u>	<u>총원가</u>
기초재고(1. 1.)	300	10	3,000
매 입(6. 1.)	600	12	6,000
매 입(9. 1.)	300	15	6,000
<u>계</u>	<u>1,200</u>		<u>15,000</u>
매 출(5. 1.)	200		
매 출(8. 1.)	500		
매 출(11. 1.)	400		
기말재고(12. 31.)	100		
<u>계</u>	<u>1,200</u>		



#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 재고자산

기초재고(1. 1.)	300	매출원가(5. 1.)	200
매 입(6. 1.)	600	매출원가(8. 1.)	500
		매출원가(11. 1.)	400
매 입(9. 1.)	300	기말재고(12.31)	100
계	<u>1,200</u>	계	<u>1,200</u>

## 선입선출법(FIFO ; First-In First-Out Method)

기초재고(1. 1.)	300 X10	매출원가(5. 1.)	200 X10=2,000
매 입(6. 1.)	600 X12	매출원가(8. 1.)	500(100X10+400X12)=5,800
매 입(9. 1.)	300 X15	매출원가(11. 1.)	400(200X12+200X15)=5,400
			<hr/> 13,200

## 후입선출법(LIFO ; Last-In First-Out Method)

기초재고(1. 1.)	300 X10	매출원가(5. 1.)	200 X15 =3,000
매 입(6. 1.)	600 X12	매출원가(8. 1.)	500(100X15+400X12)=6,300
매 입(9. 1.)	300 X15	매출원가(11. 1.)	400(200X12+200X10)=4,400
			<hr/> 13,700

# 재고조사방법

## 계속기록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를 추적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저가나 고가에 관계없이 매입시 매입수량 기록, 매출시에도 매출수량 모두 기록, 언제든지 장부상 재고 수량을 알수 있는 방법 이기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을 상품판매 시에 계산이 가능하다. 기말재고액은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합한 뒤 매출원가를 차 감하여 계산한다.

장부상 재고기록이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저가상품을 대량으로 취급할 경우 유용하며, 실지재고조사법보다 실무상 기록 면에서 불편할 수 있다.



# 재고조사방법

## 실지기록법

매출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며, 기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간접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처리법에 비해 적다  
공산품, 잡화류, 의류, 식료품 등 다양한 저가의 상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상품의 매입과 판매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기업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 감모손실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증발 등으로 인하여 회계기말에 상품재고장에 기록된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제재고수량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의 기말재고액을 감소시키고 감모손실 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감모손실 중 상품의 보관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되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에 대하여 손익 계산서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평가손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외부에 판매됨으로써 기업에 효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겠지만, 보수주의관점에서는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이란 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큰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비용-조업도-이익분석(Cost Volume Profit Analysis)

## CVP분석의 개념

조업도의 변동이 기업의 원가, 수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이나 가격정책의 결정, 판매 전략의 수립, 특별주문의 수락, 자가 제조여부 등의 여러 형태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 CVP분석의 기본가정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조업도 변화시 변동원가는 증감, 고정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 안전한계(Margin of safety)

직역하면 안전한 마진(이익분)으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판매량과 매출액을 일컫는다. 판매량과 가격이 높을수록,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는 낮을수록 안전한계는 커진다. 안전율(MS : margin of safety)이란 기업이 손실 없이 조업을 단축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안전한계 판매량 :  $Q-Q_{bep}$

안전한계 매출액 :  $S-S_{bep}$

안전한계율 : 현재 판매량(매출액)에 대한 안전한계 판매량(매출액)의 비율 손익분기점에서 값이 0, 판매량 커지면 1에 가까워진다.

$Q-Q_{bep} / Q = PQ-PQ_{bep} / PQ = \text{매출} - \text{손익분기점 매출} / \text{매출}$   
 $= \text{공헌이익} - \text{고정원가} / \text{공헌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공헌이익}$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 유지비, 종업원 훈련비는 고정비이다.